# 승려복지, 통합시스템으로 확대 실현

**불교중흥 위한 새 집행부 과제**

**③ 승가복지 실현**

**7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공표**
**'출가에서 열반까지' 실현 관건**
**요양병원 건립불사, 인수 검토**
**"장기적인 관점서 신중히 결정"**
**전국 각 교구 복지체계도 확산**
**상호협력으로 사각지대 최소화**
**재원 마련 위한 수익구조 확보**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존경받는 승단! 승가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7대 주요 종책공약 가운데 하나가 승가복지다. 고령화 사회에 종단 스님들의 소득과 의료, 주거복지 문제를 해소해 안정적으로 수행 · 포교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적 과제라는 일성이다.

이미 조계종은 승려복지회를 중심으로 국민연금보험료와 치료비 지원 등 핵심적인 복지시스템이 안착된 상황인 만큼, 37대 집행부에 주어진 과제는 승가복지 시스템을 지속가능하게 할 안정적인 재원마련과 전국 교구로의 확산, 실현가능한 통합복지시스템 구축 등으로 꼽힌다. 여기에 병환으로 고통 받는 스님들이 치료와 수행을 병행하며 노후를 의탁할 수 있는 불교요양병원 건립 불사도 종단 숙원과제로 남았다.

특히 승려복지의 전국 교구 확산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인 동시에,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과 공감대가 필수적인 분야로 지적된다.

현재 교구본사 가운데 본사 차원에서 승려복지규정을 제정한 곳은 월정사와 직지사, 해인사, 화엄사, 선운사와 봉선사 등이다. 또 신흥사와 해인사, 고운사, 봉선사는 본사 대중들을 위한 수행연금을, 영주사와 월정사, 마곡사, 화엄사가 선방 수좌스님들의 수행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운사와 해인사, 화엄사는 주거복지도 시행하는 등 일부 교구를 중심으로 승려복지 발전 성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승려복지는 교구차원의 관심과 의지, 여건에 따라 격차가 큰 만큼, 교구별 편차를 좁히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요구된다.

불교요양병원 건립불사의 경우 제36대 집행부의 핵심사업이었던 '백만원력결집불사'의 하나로 포함돼 추진해 온 만큼, 현재 동국대 일산병원 주변부지를 대상지로 정하고 올해 1월 등기절차를 완료한 상황이다.

동시에 기존 운영 중인 요양병원을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수가 현실화될 경우 건물불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절감될 뿐 아니라 종단의 오랜 숙원과제인 불교 요양병원 설립이 빠르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적지 않다.

이 같은 내용은 진우 스님이 취임 직후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조강연에서 처음 알려졌다. 스님은 "모처에 운영 중인 요양병원 인수요청이 들어와 이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총무원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요양병원의 운영법인에서 "조건 없이 인계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현재 이에 대한 실무검토가 진행 중이다. 특히 총무원 측은 불교 요양병원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건물 노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우 스님이 종책공약에서 밝힌 '통합복지 시스템 구축' 도 핵심과제다. 스님들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는 수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승려복지의 기본목적인만큼, 의식주를 넘어 교육과 수행비, 의료, 장례(다비)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승려복지의 핵심은 '출가에서 열반까지' 빈틈없는 지원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시스템을 완비하는데 있다. 중앙과 교구간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보다 원활한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하는 이유다.

안정적인 재원이 지속가능한 승려복지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임은 이견이 없다. 이와 함께 종단과 교구 차원에서 승려복지 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하는 한편, 재가불자들이 승가 외호의 일환으로 승려복지정책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확산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각 교구본사 차원에서는 재정적 토대 구축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종단 차원에서도 승보공양 후원과 자부담, 특별분담금 외에 승려복지를 위한 수익구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진우 스님 역시 "종단 차원의 수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소중한 삼보정재 유출을 막고, 그 수입을 승가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이를 통해 승가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가능했던 승가공동체의 우수한 전통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10월 27일 '10 · 27법난 제42주년 추념법회'를 봉행했다.

## 10 · 27법난 42주년…"추념관 건립 최선"

**조계종, 10월27일 추모법회**
**정부에 피해자 진실규명도**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저질러진 10.27법난의 진실을 알리고 역사적 교훈을 후대에 알리기 위한 법석이 마련됐다. 동참자들은 법난 피해자들을 추념하며 추념관 건립과 진실 규명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조계종(원장 진우)은 10월 2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10 · 27법난 제42주년 추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법난 및 국가권력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념사에서 "종단은 위법망구 정신으로 10 · 27법난으로 인해 실추된 불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이제 소명을 다해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의하고 10 · 27법난 추념사업 주요 과제인 추념관 건립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법난 피해자모임회장 명선 스님은 피해자 스님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명선 스님은 "우리 종단이 화합해 치욕스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총무원 사회부장 범종 스님은 추념관 건립에 대해 설명하고 법난 극복과 승화를 위한 불교 명예회복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이날 추념법회에서는 10 · 27법난 42주년 추념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전국승려문예공모전과 추념곡공모전 시상도 진행됐다. 문예공모전 대상은 前 교육원장 청화 스님의 '蓮根이여, 蓮根이여-10 · 27법난을 상기하며'가 차지했다. 임은호 기자

## 2023년 IBYE 유치 쾌거

**대불청, WFBY이사회서**
**하반기 경북서 개최 예정**

대한불교청년회가 2023년 국제불교청소년교환캠프(이하 IBYE)를 유치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장정화, 이하 대불청)는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태국 방콕 마하마컷 불교대학에서 열린 제21차 세계불교청소년도우회(World Fellowship of Buddhist Youth, 이하 WFBY) 총회에 참석, 대만과 말레이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등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2023년 IBYE 한국개최를 성사시켰다.

IBYE는 매년 WFBY 회원국 청소년들이 교류하는 국제행사로 대불청은 2023년 하반기 경북지역에서 IBYE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장정화 중앙회장이 11명의 WFBY 부회장 중 한명으로 선출됐다. 노덕현 기자

## "기도하는 불자 원력이 불교중흥 토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10월 25일**
**조계사 초하루 대중법문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첫 대중법문을 통해 "기도하는 불자가 한국불교 중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단일후보로 합의추대된 첫 총무원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화합과 불교중흥을 위해 진력하겠다는 약속을 함께 전했다.

진우 스님은 10월 25일 조계사 초하루 법회에서 법상에 올라 법문했다.<사진> 이날 스님은 "불교중흥과 종단 발전, 모든 불자님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시에, 포교불사에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총무원장으로서 종단과 한국불교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불자들에게도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와 육바라밀 실천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모든 불자들이 지극히 기도하는 마음이 모여 한국불교 중흥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통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내 마음과 내 업에서 비롯됨을 알고 기도와 육바라밀 실천을 통해 나와 우리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입불 불사에도 마음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스님은 "열암곡 부처님 입불은 현재의 부처님이자 미래의 부처님이기에, 우리 불교의 미래 천년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도록 원력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 "적십자사 · 불교, 경계 없는 자비 공통점"

**진우 스님, 10월 24일**
**신희영 회장 예방받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0월 24일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예방을 받고 "종교와 사상,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대한적십자사의 나눔행보는 불교의 평등, 자비, 봉사정신도 맞닿아 있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상호협력과 더욱 활발한 행보를 당부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이날 신희영 회장에게 "적십자회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근본 바탕은 바로 인류애"라며 "불교계도 더욱 노력하겠다. 국민들의 정성으로 모인 소중한 기금을 잘 사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 회장은 "적십자사의 로고는 십자가가 아니라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빨간 반창고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적십자사 기금을 살펴보면 불심에 기반한 후원이 상당히 많고 이미 25년째 소아암환아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정목 스님 등 불교계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해주고 계시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신 회장은 "소아암 환아들이 도움을 받아 건강하게 성장한 후 다시 후원자로 인연을 맺기도 하고, 화재 등 각종 재난 피해자들이 후에 적극적으로 후원의지를 밝히는 사례도 많다"며 "우리 사회의 선순환이 가능한 근간에 국민들의 따뜻한 정서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순환의 구조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기획실장 성화 스님, 사회부장 범종 스님과 대한적십자사 윤희영 부회장이 배석했다. 송지희 기자


봉 태고종 제8대 총무원장 남허당 대종사 사리탑비 제막 행

남허당 남현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신지 43년만인 불기 2566(2022)년 10월 7일 순천 선암사에서 사리탑비를 제막했습니다.
사리탑비 제막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문도 스님들과 총무원장 호명 스님 등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은 많은 종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남허화상문도회 일동 (회장 지홍·총무 지상)





남허당 남현 대종사 행장

△1917년 탄생 △1934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해월 화상(대륜 화상 맏상좌)을 은사로 득도 △유점사 강원 졸업 △혜화전문학교(동국대학교 전신) 및 일본 고마자와대학교 졸업 △고성 통천중학교 교장 역임 △홍천 수타사 주지(고아원 운영) △통합조계종 총무원 부장 등 역임 △1970년 중앙종회 의장 역임 △1974년 태고종 제8대 총무원장 선출 △1978년 태고종 총무원장 재임 △1979년 11월2일 법랍 46세, 세수 63세로 입적

